

국내 자료에 대한 서지참조의 기술형식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Bibliographic Reference Forms of Korean Sources

배 순 자 (Soon-Ja Bae)**

〈 목 차 〉

- I. 서론
- II. 참조의 기능별 이해
 - 1. 검색적 기능
 - 2. 서지적 기능
- III. 서지참조의 기능과 형식
 - 1. 서지참조의 기능
 - 2. 서지참조의 종류
- 3. 서지참조의 기술형식
- IV. 국내 학술논문에서 나타난 서지참조 기술형식의 조사
 - 1. 조사의 진행
 - 2. 조사의 결과
- V.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하나의 저작이 생산되는 데에 관련된 서지통정의 기능을 갖는 서지참조에 관한 조사로서 특히 국내자료의 기술형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지참조란 학술적 저작에서는 생략될 수 없는 중요 부분이나 현재 국내의 저작물에 나타난 그 기술형식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국내자료의 기술형식은 선택사항이므로 형식의 불일치 정도는 심각한 지경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로 잡으자 국내의 대표 학회지를 대상으로 국내자료에 대한 서지참조의 기술형식을 조사한 결과, 서명사항이 특히 다양하게 기입되며 각 학문 분야별간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내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on bibliographic reference forms, especially focused on the forms of Korean sources. Although bibliographic reference is one of the critical elements in academic works, it seems every work has its own forms in Korea. The fact that the bibliographic reference forms in Korean works are made up by option causes the present state of diversity which makes difficulty in bibliographic control. The results of this search into internal academic journals show the diversity in the entry of title and significant gap of bibliographic reference forms among disciplines.

* 1998년도 교내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해 진행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I. 서론

도서관의 기본적 기능이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전한 보존과 그것에 대한 인식과 접근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은 전통적인 도서관 시스템에서부터 현대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관련자들에게는 끝이 없는 과제로 남아, 그것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방법적 개발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서지통정을 위한 노력의 하나에 서지기술의 합리화가 포함되어 있다.

서지기술이 갖는 현대적 도서관 시스템에서의 기능은 자료검색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나 자료를 확인하고 서지정보를 인식하는 데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서지통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도서관 시스템에서는 서지통정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서지기술이었으며, 특히 문헌이 자산으로 취급되던 과거에는 자산목록의 의미도 포함하는 자료에 대한 유일한 기록형태였다.

점차 도서관의 기능이 자료의 보존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현대적 기능으로 발전되어 오면서 자료에 대한 서지통정은 자산목록으로부터 검색목록으로서의 기능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지통정의 주요 수단인 목록은 자료의 확인기능보다 자료의 검색기능을 더 강조하게 되어 '목록'이란 단어에는 두 가지의 기능을 구분하는 한정어를 붙여 '카드목록'과 '서지목록'으로 구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기술에 있어서도 카드목록은 규칙을 따르도록 하나 서지목록은 그 규칙에 준하는 규정 내에서 각 지역별, 기관별, 심지어는 각 개인별로 선택사항을 두게 되었다. 그 결과 규칙에 의해 준수되는 목록기술에 비해 규정에 의해 권장되는 서지기술은 다소 혼란스러운 정도로 여러 가지의 형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서 더 나아가 국내 자료에 대한 서지기술 형식은 더욱 일률적이지 못하다.

각종 정보자료를 대상으로 서지기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별 독서목록의 작성과 각종 서지류의 작성, 그리고 여러 저술에서의 서지참조(bibliographic reference) 등 여러 가지이다. 이런 여러 경우마다 서지기술의 형식은 국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의 습관과 관례에 따라 여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지통정의 수단으로서, 서지는 목록에 비해 다소 간접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지의 유형으로 포함되는 서지참조란 저술에 있어서는 학문적 가치와 직결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학술논문에서는 이를 더욱 중히 여기며 논문의 평가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 ISO)에서 자료의 서지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각 학술기관, 또는 출판기관에서 나름대로의 서지형식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단일한 서지표준화의 실현은 다소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서지기술 형식의 다양함이 국내자료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출발된 것이다. 최근 들어 전자매체에 관한 서지참조의 기술에 관해서는 다소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 보다 먼저 전통적인 학술정보자료에 대한 기술의 확립이 우선으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서지참조가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는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각 논문에 참조된 국내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을 조사하고자 한다. 서양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의 형식은 다소 다양한 양식서를 따르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표준화가 정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국내자료를 위한 형식은 각 양식서별로 선택사항으로 제정되어 있어, 서지기술의 형식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이는 학술활동으로서 논문을 중시하는 서양과는 달리 시험을 중시하는 동양적 사고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서지목록기술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다소 더디었던 결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저술에 기록되는 서지참조를 참조의 한 유형으로 취급함으로써 서지통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서지통정의 주요 수단인 목록의 발전과 연계하여 서지참조를 이해하고자 한다. 목록의 발전사를 본다면, 초기 목록의 주요 기능은 문헌에 대한 확인, 즉 서지적 기능이었으나 도서관이 이용중심의 조직으로 발전하면서 문헌에 대한 검색기능을 더 강조하였으며, 오늘날 기계가독목록에서는 다시 서지적 기능을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지적 기능을 주 기능으로 삼는 서지참조의 기술에서 국내자료에 대한 표준화의 확립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욱이 나날이 달라지는 정보자료의 유형별 개발과 수적인 증가현상은 자료에 대한 구별된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어, 서지기술에 대한 전문가적 관심은 표준화에 이어 새로운 유형의 자료를 위한 형식의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Ⅱ. 참조의 기능별 이해

정보자료의 서지통정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인 목록시스템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자료를 인식 또는 검색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서지통정의 해결이야말로 문헌정보학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끝 없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보완적 수단의 개발이 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보완적 수단의 하나가 '참조' 장치이며, 이는 서지목록에서나 카드목록에서 각각 정보자료의 인식과 검색을 위한 보조

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조란 일반 사전적 의미로는 “참고로 대어 보다”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헌정보학의 전문 사전적 해석¹⁾으로는 ① “한 저작물에 대해 안내를 할 수 있는 일련의 서지적 요소로서, 그 저작물의 특별한 기능을 확인 또는 식별하는 데 필요한 완전한 기록”, ② “목록이나 색인에서 하나의 표목으로부터 다른 표목으로의 연결지시”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참조의 두가지 해석은 곧 참조의 기능이 서지목록에서와 카드목록에서 각각 다르게 수행되는 것임을 말해준다. 즉 카드목록에서는 검색기능의 보완역할로서, 관련 표목에 대한 지시와 표준표목에의 안내를 확대시키려는 연결참조를 말한다. 한편 서지목록에서는 관련된 저작을 파악하고 인식하기 위한 서지적 참조의 기능을 갖는다.

1. 검색적 기능

참조의 검색적 기능이란 곧 카드목록 상에서 참조가 수행하는 역할을 말한다. 이용자위주의 도서관시대 이후 자료조직에서 무엇보다 중하게 요청되는 것은 이용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수월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참조의 본격적인 구상과 활용은 자료의 접근과 검색에 필요한 완벽한 목록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에 더 집중되어 왔다.

목록에서 ‘참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파니치의 목록규칙에서이며²⁾ 이 때의 뜻은 문헌에 대한 접근수단인 상호참조의 의미이다. 상호참조란 특정의 완전한 표준저록을 정해 놓고 접근이 가능한 모든 것은 이 표준저록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한 일단의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의 목적은 이용자에 대한 봉사는 최대한으로 하되 자료조직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최소화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참조의 종류에는 상호참조(cross reference), 분출참조(analytical reference), 표목참조(heading reference), 주제참조(subject reference)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연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접근의 폭을 최대화 시켜준다. 따라서 이들을 통칭하자면 ‘연결참조’라 할 수 있다.

카드목록의 관점에서 본 참조의 이와 같은 검색적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저록 외의 여러 가지 검색어의 선정, 즉 표준저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접근점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 v., "bibliographic reference".

2) 이양숙, 서지적 관계유형에 기반한 참조시스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 13.

2. 서지적 기능

참조의 주요한 기능은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확인을 위한 보조 수단이다. 이와 같은 기능 중 접근의 기능을 강조한 것은 카드목록에서의 상호참조이며 확인의 기능을 강조한 것은 서지목록에서의 참조이다. 이는 곧 참조가 갖는 서지적 기능으로서, 자료에 대한 인식과 확인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이다.

목록에서 수행되는 참조의 역할은 특정의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표준표목으로의 연결이며, 서지에서의 참조는 관련이 있는 자료 끼리를 연결하는 역할이다. 이와 같은 역할상의 차이는 목록과 서지의 차이로서, 목록은 개별 저작에 대한 서지통정의 수단이며, 서지는 관련 저작에 대한 서지통정의 수단이라는 차이와 같은 이론이다. 그러므로 카드목록에서는 표준저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접근점의 마련이 중요한 반면, 서지목록에서는 저작물의 확인을 위한 일정한 형식에 따른 서지기술이 중요하다.

특히 서지적 기능으로서의 참조는 학술성을 갖는 저술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적 역할을 하게 된다. 특정의 자료가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서술된 내용이 정확하고 개인적인 창작이어서는 안되며,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를 둔 것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그 근거가 된 자료에 대한 안내와 확인을 위한 수단이 곧 서지적 참조이며 학술적 자료에서는 빠져서는 안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학술적 저작물에 포함되어 서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참조를 다룬다. 검색기능을 갖는 참조와는 달리 서지적 기능을 갖는 참조에서는 무엇보다 자료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은 서지적 기술의 형식에 집중된다.

목록의 시작은 서지목록에서 출발되었으나 개발면에서는 카드목록이 더 많은 관심 속에서 빠르게 발전되었다. 이는 이용자 중심적 도서관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도서관조직에서는 무엇보다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수월한 이용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준표목에 의해 검색조건이 좌우되는 전통적 정보시스템에서는 표준표목을 보완하는 참조시스템의 준비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나 온라인목록에서는 이론상 모든 데이터요소를 접근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지통정에서의 중요한 조건은 검색의 조건보다 자료의 인식을 위한 조건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목록연구에서는 서지적 참조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준비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

Ⅲ. 서지참조의 기능과 형식

1. 서지참조의 기능

서지참조란 하나의 저작이 생산되는 데에 도움이 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자료를 완전한 서지적 요소에 의해 연결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적·물적 지원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며, 이들의 지원을 밝혀 주어야 함은 학문하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윤리에 해당된다. 특히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 윤리성을 내용의 명확성과 논리성에 덧붙여 논문의 기본적인 요건으로 간주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논문의 평가에서도 반드시 지적되는 부분이다.

즉, 서지참조란 하나의 저작물이 나오기까지 활용된 정보원을 제시함으로써 그 저작의 내용이 어떤 근거를 가지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며 아울러 도움을 받은 정보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저작물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본 의미인 한편 그 저작물을 읽는 독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저작물의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를 안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결국 서지참조란 학자의 윤리적 도리를 비롯하여 다음 몇 가지의 서지적 기능을 갖고 있다³⁾

- ① 저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에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그 의견과 주장에 대한 권위와 정보의 정확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
- ② 독자들로 하여금 저술의 내용에 참고한 자료 또는 관련되는 자료를 안내 받아 본문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의도.

2. 서지적 참조의 종류와 기술형식

서지참조의 이상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유형에 의한 서지적 표현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서지참조의 종류가 된다. 즉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권위와 정보의 정확함을 증명하려는 목적으로 인용된 자료를 밝히는 것은 인증을 통해 표현되며, 참고한 자료 및 관련 자료의 안내는 참고문헌목록을 통해 제시된다.

서지참조란 정보원에 대한 확인, 안내 혹은 소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된 출

3) Diane L. Garner, "Citation Forms," in *International Information-Documents,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of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ed by Peter I. Hajnal (Colo : Libraries Unlimited, Inc., 1988), p. 178.

판물이거나 또는 한 부분이 정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서지참조의 이와 같은 기능을 위해 각 서지기술에는 특정의 요건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서지참조의 기술형식을 구성하게 된다. 즉 일정한 양식에 의한 서지기술을 통해서 참조의 종류인 인용과 참고문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된 각 자료의 유형별 구별과 물리적 형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지기술은 자료를 보지 않고도 기술된 자료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서지적 공유가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서지기술은 하나의 언어적 표현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서지기술의 양식은 국가적, 국제적인 표준화를 필요로 한다.

언어란 본시 국가별, 지역별의 범위에 따라 의사소통의 한계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지기술에 의한 서지통정 역시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갖고 발행된 각종의 서지기술양식에 의해 현재 서지참조의 기술형식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단일된 표준화가 수립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그 결과 현재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양식서만 하더라도 지역별, 학술기관별, 학문분야별로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각 양식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인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양식서로는 시카고매뉴얼,⁴⁾ MLA양식서,⁵⁾ APA양식서,⁶⁾ ISO 양식⁷⁾ 등이 있으나 대개 학술 연구물의 발행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에서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이들 양식서 중 가장 먼저 제정된 시카고매뉴얼 만 하더라도 대학출판부에서 발행된 본 매뉴얼의 형식과 대학원 논문의 참조서지 기술양식인 Turabian⁸⁾형식이 동일 대학에서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APA양식과 MLA양식은 모두 학회에서 제정된 양식으로서, 이들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논문준비자들은 각 학회의 양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 690)에서 제정한 참고문헌의 서지를 위한 준칙도 있으나 논문작성에서는 잘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는 논문제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논문이 제출되는 기관에서 요청하는 양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각 학술기관에서 제정한 양식을 주로 활용하기 마련이다.

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Manual of Style*, 14th e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5) Joseph Gibaldi,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4th ed. (New York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5).

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4).

7)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690 : Bibliographic Reference to Documentation (ISO, 1987).

8)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6th e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1) 각 양식서의 서지기술 형식

서지참조를 위한 기술형식은上記의 주요 양식서 별로 특정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간의 차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들어 비교한 내용을 아래에 나타내었다. 대상이 된 자료의 유형은 학술정보자료로서 주로 활용되는 단행본, 백과사전,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전자자료 등이다. 그리고 기술형식의 비교는 현재 대표적인 양식서로 적용되고 있는 시카고매뉴얼(CPU)과, MLA 및 APA양식에서 각각 차이를 갖는 주요 부분만을 비교하였다. 서지참조 중 참고문헌의 기술형식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MLA와 APA양식의 경우, 주의 기술은 간략형으로 처리하고 참고문헌을 통해 완전한 서지기술이 제시되는 본문주를 취하므로 서지기술의 비교는 참고문헌의 목록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지정보요소와 그 기술의 순서는 이들 각 양식서들간에 서로 동일하나 단지 기술의 형식에서 차이를 갖는데 자료 형태별의 세부형식에 앞서 먼저 전 자료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형식에서는 다음의 사항에서 차이를 갖는다.

① 저자명 기입 : 2-3인 저자

CPU : 저자간에 콤마를 찍어 구별하고 마지막 저자명 앞에 'and'를 삽입하며 대표 저자 외에는 표지의 표기대로 이름과 성의 순으로 기입한다.

MLA : CPU와 동일한 형식으로 기입된다.

APA : 저자간에 '&'를 삽입하고 저자명은 모두 성, 명의 형식으로 기입한다.

② 저자-연도식 기입

CPU : 제 24판부터 권장된 형식이며 채택할 경우에는 연도의 앞 뒤에 마침표를 찍는다.

MLA : 출판사항에서 후기입된다.

APA : 정착된 형식으로서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③ 인덴션

CPU : hanging indention

MLA : hanging indention

APA : 본문주로서 참고문헌의 인덴션은 일반적인 주의 형식인 paragraph indention을 취한다.

이상과 같은 형식적 차이에 덧붙여 자료의 형태별에 따른 세부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서명의 기입

CPU : 관사와 전치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頭문자를 대문자로 하여 이탤릭체로 표기.

MLA : 모든 단어의 두문자를 대문자로 하고 활자체를 바꾸지 않으며 밑줄을 긋는다.

APA : 첫 시작 단어의 頭문자를 대문자로 하며 활자체는 바꾸지 않고 밑줄을 긋는다.

(2) 잡지, 신문의 경우

① 기사제목의 기입

CPU : 제목은 겹따옴표로 싸주며 표기형식은 단행본의 서명기입과 동일하나 문자모양은 바꾸지 않는다.

MLA : CPU와 동일하다.

APA : 단행본의 서명 기입형식과 동일하다.

② 잡지명의 기입 : 단행본의 서명기입과 동일한 형식으로,

CPU : 문자모양을 이탤릭체로 바꾼다.

MLA : CPU와 동일한 형식

APA : 잡지명과 권수에 밑줄을 긋는다.

(3) 백과사전의 경우 : 각 양식서 모두 표목은 정기간행물의 기사명과, 서명은 단행본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4) 학위논문의 경우

CPU : 논문제목은 기사논문의 형식(겹따옴표)으로 기입한 뒤, 학위명(약자)과 학위수여의 대학명을 기입한다.

MLA : CPU와 동일한 형식으로 표기된다.

APA : 논문제목은 단행본의 서명기입 형식(제목에 밑줄)으로 기입한 뒤, 학위명과 대학명을 기입한다.

(5) 전자자료의 경우

전자자료의 경우에도 각 양식서간 형식의 차이는 인쇄자료에서와 같이 자료제목의 기입형식이 서로 다르다. 즉, 데이터베이스의 부분제목과 전체제목의 기입형식은 기사논문과 단행본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서로 다르다. 매체유형을 []로 싸 주는 것과 접속일자 및 URL의 마지막 기입형식은 동일하다.

IV. 국내 학술논문에 나타난 서지참조 기술형식의 조사

1. 조사의 진행

서지참조는 특정 저술을 마련하는 데에 직·간접의 지원 또는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참조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학술적인 저술과정에서는 생략될 수 없는 주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서지참조는 대개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논문이나 저서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술적 평가가 필요한 자료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평가의 사항으로 포함되므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서지참조에 대한 경향을 알기 위해서는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중에서도 서지참조의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참고문헌의 목록을 조사하였다.

분야별 조사를 위해 인문과학에서는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을, 사회과학에서는 심리학과 행정학 및 경영학을,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과 기계공학을 각각 대표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의 선정은 대체로 학제성이 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어영문학과 심리학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들 주제의 논문들이 MLA와 APA양식을 각각 표준형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자료의 기술형식이 다소 표준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서지참조의 기술형식은 계속하여 달라지는 정보자료의 유형에 대응하고자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발행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의 자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다.

2. 조사의 결과

1) 학문분야별 기술형식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한 조사로서, 분야별로 나타나는 참조서지의 기술형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분야의 각 주제별 대표 학회지 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분야별	주제별	학회지명
인문과학분야	영어영문학	영어영문학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
사회과학분야	심리학	한국심리학회지
	행정학	한국행정학보
	경영학	경영학연구
자연과학분야	물리학	응용물리
	기계학	대한기계학회논문집

상기의 각 학회지별로 조사된 내용은 각 학회에서 제정하고 있는 논문투고요강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실제 논문작성자들이 사용한 기술형식과는 차이가 있을 것임으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목록 상에 나타난 기술형식도 조사하였다. 각 학회지별로 게재된 논문에서 조사된 국내 자료에 대한 서지기술 형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영어영문학」 경우

본 학회지는 MLA양식 최신판을 논문투고규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영어영문학학회에서 발행하는 대표적인 학회지로서 조사된 논문은 최근 1997-9년간에 게재된 논문33편이다. MLA양식 서에서 추천되고 있는 저자-연도식 기입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실제 게재된 논문에서도 저자-연도식 기입은 한 건도 없었다. 인용주를 제외한 해설주와 참조주는 각주로 처리되며 인용문헌의 서지기술에서 나타난 국내의 자료에 대한 형식은 아래 예와 같다.

(예)

김용정. 『환경과 종교』. 서울 : 육문사, 1990

이강수. 「노장철학의 자연관」. 『영어영문학』 42권 3호(1996, 가을). 523-48.

정영애. 「대학도서관의 외국자료 구입업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4.

• 「국어국문학」 경우

인문과학 분야에서 국어국문학을 선정한 이유는 게재된 논문들이 주로 국내자료를 참고할 것이며, 따라서 국내자료에 대한 기술형식이 가장 표준적인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본 학회지는 해당 주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술지이며 학회에서 제시된 논문투고규정은 없다. 최근 3년간 게재된 논문 46편의 조사결과 확인된 서지참조의 형식으로, 주의 처리는 각주방식이었으며 '91년도 이후의 논문에서는 저자-연도식 기입이 자주 나타났다. 국내자료의 서지기술형식은 대체로 다음의 예와 같으나 논문작성자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식이다.

(예)

서정주(1974). 미당 자서전, 민음사.

문덕수, “신라정신에 있어 영원성과 현실성”, 현대문학, 1963, 4, PP. 11-32.

양금식. 서정주 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한국심리학회지」 경우

APA양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심리학회 발행의 본 학회지를 대상으로 하여 최근 3년간 게재된 논문 중 29편을 조사하였다. 서지참조에 대한 규정으로, 주의 처리는 본문주로 할 것이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0권 제 4호)

며 서지기술에 관하여는 단행본과 기사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자료와 서양서를 위한 각각의 형식을 제시하였다. 서양서는 APA양식과 달리 단행본의 서명과 정기간행물의 잡지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국내자료는 그 요소의 활자체를 진하게 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APA양식의 전형적인 기입방식인 저자-연도식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게재된 논문의 조사에서도 모든 논문들이 이와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참고문헌목록의 기술형식은 다음 예와 같다.

(예)

姜東丹 · 金英蘭(1982). **한국인의 언어생활**. 서울 : 불일사.

천일화(1990).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要因的 분석연구. **韓國心理學會誌**, 12, 21-30.

• 「한국행정학보」 경우

사회과학 분야에서 다소 학제성이 높은 주제로 판단되어 선정된 행정학의 대표 학술지인 본 학회지의 최근 3년간 발행된 논문 중 42 편을 조사하였다. 실제 조사결과 행정학 외에 다양한 영역의 연구들이 수록되었으며 본 학회에서는 APA Manual 3rd ed.(1986년판)에 따른 서지기술 형식을 논문기고요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본 학회지에서 제시한 서지참조의 형식은 시카고메뉴얼과 APA양식을 혼합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주는 본문주로 처리되나 서지기술의 형식에서 서명과 잡지명의 기입은 시카고메뉴얼을 따르고 있다. 실제 게재된 모든 논문은 학회에서 제시한 논문투고요강을 준수하였으며, 각 유형별 자료의 기술형식은 아래 예와 같다.

(예)

박동서. (1990). 「한국행정론」. 서울 : 법문사.

이종범. (1994). 행정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연구. 「한국행정학보」, 24(1):34-47.

신무섭. (1990). 「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경영학연구」 경우

사회과학에서는 상경계열을 위해 학제성이 다소 강한 경영학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주제의 대표학회인 한국경영학회에서 발행하는 본 학회지를 조사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자체의 논문투고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본문주를 권장하며 서양서의 기술형식으로 보아 시카고메뉴얼을 기초로한 국내자료에 대한 형식은 다음 예와 같다. 최근 3년간의 논문 29편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도 기고자들은 본 규정대로 기술하였으며, 학위논문의 형식은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사항이었으나 대부분 아래의 예와 같다.

(예)

- 김수곤 (1978). 임금과 노사관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손태원 (1992). "공정보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 경영학연구, 23, 89-111.
 이정기 (1995). "다국적기업의 ...".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정기 (1995). 다국적기업의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응용물리」 경우

본 학회지는 한국물리학회에서 발행되는 대표 학술지로서 최근 3년간 발행된 논문 45편을 조사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특정의 양식서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의 논문투고규정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주는 후주방식으로 할 것과 목록기술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사항만을 제시하며, 기술의 형식에 대해서는 잡지명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시된 사항이 없다.

실제로 게재된 논문을 보면 대부분의 논문제출자들은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서지기술의 형식은 현재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前述된 양식서 중 그 어떤 양식서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서양서의 경우, 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시카고메뉴얼을 적용하는 범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자료의 서지사항을 보면, 목록기술의 기본적인 서지정보 요소를 생략한 기술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단행본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대개 생략되어 있으며 기사논문에 대해서는 기사제목과 게재면수를 기록하지 않는데 그 기술형식의 예는 아래와 같다.

(예)

- [1] 유명수, 물리학 이해 (학문사, 서울, 1992).
 [2] 이운철, 이상훈, 김용식, 신철진, 응용물리, 12 (1998).
 [3] 강치중, 현미경을 이용한 반도체와 산화막 내의 동역학적 전하거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98.

한편 물리학의 조사대상 자료인 응용물리에서 보이고 있는 참고문헌목록의 기술형식 중, 정기간행물의 기사논문에서 기사제목과 수록면수를 기입하지 않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기술형식이 해당 분야의 학위논문에서도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주제의 박사학위논문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박사학위논문에서 나타난 서지참조의 형식 역시 학술지와 유사한 형식으로서, 주의 처리는 후주방식을 취하며 기사논문의 기술요소에 논문제목과 게재면수가 생략되어 있다. 인용문헌으로 국내자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각 자료유형별의 기술형식은 논문이 제출되는 대학에서 지정된 형식을 따르고 있어 학회지에서 보이는 형식에 비해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경우

자연과학 분야의 공학계열을 위해서는 대한기계공학회 발행의 본 학회지를 선정하여 최근 3년간 발행된 논문 중 34편을 조사하였다. 본 학회에서는 자체내의 논문집필세부요강을 정하고 있으며, 서양서의 형식으로 보아 시카고메뉴얼에 기초한 형식이다. 인용주는 후주방식으로 처리되며 저자연도식인 인용문헌의 기술형식은 아래 예와 같으나 출판사와 출판지의 기록순서가 역순이다. 학위논문은 요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실제 논문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형식이다.

(예)

- [1] 김길동. 1974. 철삭이론. 범문사, 서울.
- [2] 이철수. 1987. “압력용기의 피로파괴에 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논문집 제 8권, 제 5호, pp. 85-111.
- [3] 추홍국. 194. “분연속 발열체가 부착된 수직...”.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과 같이 국내 대표 학술지의 서지참조에 대한 결과를 보면, 국제적 양식이거나 또는 자체에서 제정한 일정 양식을 제시한 학회지의 논문들은 대체로 참조서지의 기술형식이 일정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기술형식이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특히 국내자료의 기술형식은 동일한 국제 양식서를 채택한 경우에도 서로 다른 형식으로 표기된다.

조사결과 각 학문 분야별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항은 없으나 국제 양식서를 채택하는 경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APA양식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실제의 논문조사 결과 논문게재자의 대부분이 각 학회에서 지정한 양식을 준수할 뿐 아니라 기술형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따라서 국내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의 형식이 나름대로 정착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 국어국문학 주제의 연구자들은 다른 주제에 비해 서지기술의 형식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국내자료를 거의 참고하지 않으며, 서지참조를 위한 국제적인 특정 양식서를 채택하지는 않으나 주는 후주로 처리하여 인용문헌목록이 참고문헌목록을 대신한다. 자체적으로 제정한 서지기술 형식은 시카고메뉴얼에 가까운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서양서를 주로 참고하는 특성에 비해 서지기술에 대한 개념은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전반적으로 보면, 서양자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형식을 따르고 있으나 국내자료에 대해서는 예상한 바대로 학회별, 개인별로 매우 다양한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특정 국제양식서를 논문투고규정으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일반

적인 양식서로 통용되고 있는 시카고메뉴얼에 기초한 서지기술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② 각 논문에서 나타난 국내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의 형식적 차이는 단행본의 서명 기입과 정기간행물의 기사명 및 誌名, 그리고 학위논문의 제목 기입에서인데 채택된 각 양식서별의 국내자료에 대한 형식은 아래와 같다.

(1) 시카고메뉴얼을 따르는 경우, 단행본 서명은 흘걱음 또는 겹걱음으로, 기사논문의 제목은 겹따옴표로 싸주며 誌名은 단행본 서명과 동일하게 표시한다.

(2) APA양식을 따르는 경우, 단행본 서명과 誌名은 흘걱음으로 싸거나 글자를 진하게 하며 기사논문의 제목은 겹따옴표로 싸거나 아무 표시를 하지 않는다.

(3) MLA양식을 따르는 경우, 단행본 서명과 誌名은 겹걱음으로, 기사논문의 제목은 흘걱음으로 쓴다.

(4) 학위논문의 제목은 겹따옴으로 싸거나 거의 대부분 아무 표시를 하지 않는다.

2) 시대별 기술형식

각종 정보자료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서지통정의 한 수단으로서 기록되는 목록은 정보자료의 생산에 따라 그 기술의 형식이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따라서 각종 기술양식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반복하면서 정보자료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에 대응하고 있다. 기술양식서로는 가장 먼저 발간된 시카고메뉴얼을 보더라도 현재까지 14번의 개정(1994, 14 ed.)을 반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학분 분야에서 서지참조의 기술형식이 시대에 따라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알기 위해 1980년대에 발행된 동일 학회지를 대상으로 각 시대별로 달라지는 서지참조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논문은 분야별 조사에서와 동일한 학회지를 선정하여 해당 연도에 게재된 논문의 참고문헌목록을 조사하였다.

• 「영어영문학」의 경우

본 학회지의 시대별 서지기술 변천을 알기 위하여 조사된 1980년대의 학회지 중 봄호에서는 논문투고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1982년 호부터는 간략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서지참조는 원칙적으로 MLA양식을 따르도록 하며 학회지에 제시된 사항으로는 영문의 단행본자료에 대한 간단한 지침일 뿐이다.

1980년대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중 33편에 대한 조사결과, 주의 처리방식이 1990년대와는 달리 주로 각주방식을 취하였으며, 서지기술의 형식은 현재의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저자-연도식 기입형식을 영문자료에는 논문투고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국문자료에는 언급이 없으며 실제 논문에서도 '99년도에 이르기까지 출판연도를 선기입하지 않는다.

• 「국어국문학」의 경우

1980년대의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52편을 조사한 결과, '90년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논문에 참고문헌 목록이 수록되지 않았다. 모든 논문이 각주방식을 취하며 자료의 서지기술은 개인별로 매우 다양한 형식을 취하였다. 저자명과 서명간에 콜론이 표시되기도 하며, 특히 단행본의 서명과 기사논문의 제목 및 지명의 기입에서 다양한 표기형식을 보였다.

• 「한국심리학회지」의 경우

1980년대에 발간된 학회지의 게재논문 중 31편을 조사한 결과 APA양식서를 기초로 한 형식을 권장하였으며, 국·영문자료에 대한 별도의 기술형식을 제정하였다. 규정의 내용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과는 저자-연도식 기입을 제외한 모든 사항에서 동일하다.

• 「한국행정학보」의 경우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서지기술 형식의 규정은 1990년도부터 지정되었으며, 처음부터 APA양식을 따르도록 하였다. 게재논문에 대한 실조사는 1980년대 논문 중 38편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논문투고요강이 제시되기 이전인 당시의 논문들은 모두 각주에 의해 주를 처리하였다. 참고문헌의 기술형식은 영문서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기사논문 제목을 겹따옴표로 싸는 형식으로 보아 시카고메뉴얼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문자료에 대한 기술형식에서는 단행본 서명 표기에서 다소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형식이다.

(예)

이상구. 「한국정치발전론」. 서울 : 중앙출판, 1986.

송충식. “당정협의회 이면의 구조,” 한국행정학보, 32, 1:16-31.

• 「경영학연구」의 경우

1980년대의 본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31편을 조사한 결과, 당시 학회지의 편집방침 내에 논문투고요강이 제시된 것은 1987년호 부터이다. 특정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시카고메뉴얼에 기초한 자체의 양식을 가지며 국내자료로서 서명과 誌名은 홑꺼움쇄로, 논문제목은 겹따옴표로 싸는 형식이다. 수록논문을 보면, 1985년도에 간혹 나타난 저자-연도식이 '80년대 말에는 많은 논문에서 나타나며, 투고요강에 제시된 본문주 대신 실제 논문에서는 대부분이 각주방식을 택하고 있다.

• 「응용물리」의 경우

1980년대에도 본 학회에서는 논문투고요강을 제정,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90년대와 동일

하다. 게재논문 43편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투고요강을 준수하였으며, 각 자료 유형별의 기술형식도 1990년대와 동일하게 기사논문에 대해서는 지명과 권호만을 표기하였다.

• 「대한기계공학회지」의 경우

본 학회지의 투고요령은 1980년대에도 제정되어 있으며, 특정의 국제 양식서를 채택하지는 않으나 서양서의 경우, 서명과 誌名을 이탤릭체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 시카고메뉴얼을 기초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게재된 논문의 조사결과, 국내자료의 단행본 서명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으나 논문제목에는 겹따옴표를 한다. 그리고 '80년대말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저자-연도식 기입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알아본 각 학문의 영역별로 나타나는 참고문헌의 서지기술에서 시대별로 나타나는 현상을 종합하면 국내의 자료에 대해 특별히 적용되는 형식의 변화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양식을 채택한 학회지에서는 해당 양식서와 거의 일치되는 내용으로 달라지고 있는데 그 변화는 주의 처리방식과 저자-연도식 기입에서이다. 주의 처리에서, 자연과학 분야는 전통적으로 후주방식에 의하며, 사회과학 분야는 각주방식에서 점차 본문주로 바뀌는 추세이다. 특히 저자-연도식 기입은 1980년대 말부터 대부분 채택하는 형식이나 자연과학의 물리학과 인문과학 분야에서는 연구자들의 습관에 따라 여전히 선택사항으로 취급되고 있다.

V. 결 론

서지참조란 하나의 정보자료가 생산되는 데에 관련되는 자료를 참조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학술정보자료에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이를 나타내기 위한 체제와 형식은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통제를 받으며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특히 논문작성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학문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논문보다는 시험을 중시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다소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서지참조에 대한 정의를 보더라도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국내의 용어사전에는 “도서나 그 일부, 또는 연속간행물 및 기사들에 대한 참조”⁹⁾로 풀이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용어사전에는 “저작물의 생산

9) 사공철 등편, 『도서관·정보학용어사전』, s. v. “서지참조”.

에 참고가 된 특정 자료나 기록물 또는 서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서지적요소¹⁰⁾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국내외간의 서지참조에 대한 개념은 '대조'와 '확인'으로 서로 차이가 있으며 서지기술의 형식 또한 국내에서는 선택사항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국내 학술자료에 나타난 서지참조의 기술형식을 보면, 서양자료는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양식서의 선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국내자료에 대한 형식은 동일한 양식서를 채택하는 연구자들간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지참조가 갖는 서지통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논문작성의 초심자들에게는 참조서지의 기술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도록 만든다. 더욱이 국내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인용색인을 서두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서지기술의 바로잡음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연구자들이 그들의 연구에 강한 활용성을 갖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 및 학위논문을 서지참조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기술형식 상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나타난 각 논문들간의 불일치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단행본의 서명, 정기간행물의 기사제목과 誌名, 학위논문의 제목기입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정도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표준된 양식서가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며 아울러 학회지의 논문심사 내용 속에 서지기술의 형식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이 요청된다. 그리하여 서지참조를 위한 기술형식의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지참조의 형식은 학문분야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서지기술의 개념이 정착되어 있는 편이며 서지참조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도 하고 있으나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다소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자는 서양서에 대한 서지기술은 각 학회에서 채택한 기본 메뉴얼을 따르도록 하나 국내자료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나마 서지기술의 형식을 표준화하도록 제안한다. 현재 각 학회별로 국내자료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을 그대로 둔다면 국내 자료에 대한 서지기술의 형식은 여전히 서지통정 상 큰 혼란을 줄 것임이 틀림이 없다.

우선 서지정보요소로서 가장 중요하면서 현재 논문작성자들간에 그 형식의 다양함이 가장 심각한 제목의 기입을 부분적으로나마 표준화할 것을 제안한다. 제목의 기입형식을 통일함으로써 각 정보자료의 유형별 구별을 주요 정보요소인 제목에 의해 쉽게 하도록 하며, 이는 곧 기술형식에서 현재 가장 다양함이 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단행본의 서명과 정기간행물의 지명 및 기사제목, 그리고 학위논문 제목의 기입형식에 대한 표준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① 단행본의 서명과 정기간행물의 誌名은 흘걱음쇄를 친다.

10) p. 3의 주1) 참조.

현재 단행본의 서명을 시카고메뉴얼에 기초한 논문에서는 홑꺼음쇄를, APA에 기초한 논문에서는 홑꺼음쇄 또는 고딕체로, MLA에 기초한 논문에서는 겹꺼음쇄를 치고 있다. 그러나 서지기술의 기본 원칙상 가능한 복잡한 표기를 피하는 것이 좋으므로 서명에는 홑꺼음쇄를 치기사제목과 구별하도록 한다.

② 정기간행물의 기사제목은 겹따옴표로 쓴다.

기사제목을 시카고메뉴얼에 기초한 논문에서는 겹따옴표를, APA에 기초한 논문에서는 겹따옴표 또는 구별없이, MLA에 기초한 논문에서는 홑꺼음쇄를 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관습적인으로 겹따옴표를 사용한다. 모든 기사제목이나 자료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제목을 겹따옴표로 표시하므로써 자료의 전체가 아님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학위논문의 제목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특정의 양식을 갖고 있는 학회에서도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논문상에 나타난 형식은 겹따옴표나 홑꺼음쇄 또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 등 다양하다. 국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독립적으로 製冊이 되므로 자료의 일부를 나타내는 겹따옴표는 적절하지 않으며, 한편 단행본을 의미하는 홑꺼음쇄의 표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정현. "전자정보원의 참고문헌 작성형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학계발표회 논문집》(1999) : 1-20.
- 김태수, 남영광, 최석두.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을 위한 데이터요소의 기술형태 분석 : 정보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6권 2호(1999, 6) : 183-198.
-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제2전문위원회 편.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pp. 23-98. 『효율적인 과학기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연구』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편. 서울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연구개발정보센터, 1998.
- 배순자. "학술논문의 참조서지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14권 1호(1998) : 81-111.
- 사공철 등편. 『도서관·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86.
- 신숙원, 이순자. 『학술정보활용법』. 서울 :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 이양숙. 서지적 관계유형에 기반한 참조시스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연세대학교 연구처 편. 『새논문 작성법』. 제4판. 서울 :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이화여자대학교 편. 『연구방법과 논문작성법』.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1986.

Alderman, G. and Barbara Tuck. "Bibliographic Style; A Brief Comparative Guide." 1998.

<<http://www.unf.edu/~btuck/biblio.html>> (24 July. 1999).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Washington, D.C. : APA., 1994.

Garner, Diane L. "Citation Forms," In *International Information-Documents,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of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ed. by Peter I. Hajnal. Colo : Libraries Unlimited, Inc., 1988.

Gibaldi, Joseph.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4th ed. New York :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95.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Manual of Style*. 14th ed. Chicago : The University of Press, 1993.